

력 파크의 구축 방안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일 양국의 대표단과 참석자 여러분!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자력계가 가일층 협력하고 단결하여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부흥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향후 원자력산업의 원활한 추진, 확대를 위해서는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 원자력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며 이 점은 한·일 원자력계의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제24회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를 맞이하여 한·일 양국의 원자력 산업계 전문가가 모인 이 자리가 양국 공동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원자력산업의 부흥을 이루기 위한 활발한 토의의 장이 되고, 나이가 양국 원자력계의 새로운 부흥을 촉진하며 상호 협력을 공고히 다질 수 있는 뜻깊은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

• 일본 대표단장 개회사 •

원자력의 지속 개발에 대한 사명감

사카모토 히로사토
홋카이도전력(주) 부사장

O] 번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 일본대표단장을 맡은 홋카이도전력(주)의 사카모토입니다. 개회에 앞서 인사

드립니다.

이번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일본원자력산업회의가 중심이 되어 양국

원자력산업의 정보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금년으로 24회째를 맞았습니다.

일본은 상업용 원자력발전소가



운전을 개시한 지 37년째이며 한국은 25년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1979년부터 개최된 이 세미나는 양국 원자력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작년 원자력발전소의 평균 설비 이용률은 일본이 80.5%로 예년과 비슷한 상태임에 비하여 한국은 전년보다 2.75%가 상승한 93.2%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하여 잠깐 고찰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원자로의 정격 열출력 운전이 일정하게 이미 실시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작년 12월 국가로부터 원자로의 정격 열출력 일정 운전 실시를 위한 수속이 시작되어 금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운전 기간은 한국이 15~18개월이지만 일본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운전 기간이 13개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현재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원자력안전·보안부회의 「검사에 대한 검토회」에서 정기 검사의 실시 간격을 포함하여 검사 전반에 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는 계획 정지의 경

우 평균 정지 시간이 2000년 실적으로 350시간으로 한국의 18시간에 비해 훨씬깁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한번 고장으로 정지한 경우, 수평 전개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 단체에 이해를 얻는 것 등 사회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 재가동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의제로 올려져 있으나 전력 자유화로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다른 전원과 경합하기 위해서는 설비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은 한국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금년 1월에 도후쿠전력(주)의 모나가와 3호기가 상업 운전을 개시했으며 또 8월에는 일본 원자력발전(주)의 쓰루가 3·4호기가 국가의 전원 개발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등 신규 플랜트의 계획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에 도쿄전력의 '정기 점검 작업 기록에 관한 부정 문제'가 일어나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되어 타전력 회사에 대

해서도 같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면서 전력 자유화의 흐름과 겹쳐 원자력산업 자체가 새롭게 커다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 원자력은 없어서는 안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명을 갖고 이 문제를 극복하여 미래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일본과 한국이 공동 개최한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팀이 보여준 깨끗한 성적은 우리 일본인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이 대회는 세계의 우호 활동에도 크게 공헌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일 세미나의 성과가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발전의 발전에 머무르지 않는 아시아 각국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미나의 개최에 힘쓰신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산업 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속으로부터 인사 드립과 함께 이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열려 일본과 한국의 우호 관계가 점점 발전할 것을 바라며 개회 인사를 마칩니다. ☺